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1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8대 현웅택 회장 취임-2면(24.3.15.)	기술지원조정과	한국4-H신문
○	제주시4-H본부, 천경희 회장 취임으로 재도약-2면(24.3.15.)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신문
○	창년농업인 학교 운영 도농기원 교육생 모집-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기고] 돌봄 경제와 농업-14면(한윤아)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비료 가격 부담으로 시름에 잠긴 제주 농민들 ‘뿔났다’ -10면	-	제주매일

(한국4-H신문: 2024년 3월 15일)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8대 현웅택 회장 취임-2면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8대 현웅택 회장 취임
지난 3월 11일 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7·8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전개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회장 현웅택)는 지난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4-H가족 및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7·8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을 비롯 김한규 국회의원, 이정엽 제주도의회의원, 고상환 제주도농업기술원장, 제주도4-H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4-H충청남도본부 이춘호 회장 및 임원과 농업 관련 기관장 등이 함께했다.

이·취임식은 내빈 소개, 국민의례, 4-H서약 제창, 감사패·공로패 수여, 이임 임원 소개, 이임사, 취임 임원 소개, 회기 전달, 기념 배지 수여, 재직기념패 수여, 취임사, 격려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현웅택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이임하시는 장석진 회장님과 제7대 임원진께서 추진하던 양질의 본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승계함은 물론, 제주도 4-H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제주도는 지난 2019년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해 ‘4-H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현웅택 회장님을 중심으로 시대 변화에 적합한 제주도 4-H운동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현웅택 ▲수석부회장 김순선 ▲부회장 김창주·김승삼·이동은·이승훈·김창민·고성복·장여선 ▲감사 이석호·정현호주 기자 skj...@...kr

3.15.
한국4-H신문 2

(한국4-H신문: 2024년 3월 15일)

○ 제주시4-H본부, 천경희 회장 취임으로 재도약

제주시4-H본부, 천경희 회장 취임으로 재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H본부(회장 천경희)는 지난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강당에서 내외빈 및 읍면동 4-H본부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4-H서약 제창으로 시작됐으며, 김창주 이임회장의 이임사와 본부 기 및 의사봉 인계 인수가 이어졌다. 이후 천경희 회장의 취임사와 문선희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천경희 제주시4-H본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의 임기 동안 지·덕·노·체 4-H이념 실천을 활동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15.
이정우 제주특별... 한국4-H신문 2

(한라일보: 2024년 3월 21일)

○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도농기원, 교육생 모집-6면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도농기원,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학교'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 인력감소에 대응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의지와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도내 청년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10회·30시간 운영된다. 희망자는 21일부터 방문 또는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라일보 6**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1일)

○ [기고] 돌봄 경제와 농업-14면

돌봄 경제와 농업

2024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올해의 10대 키워드 중 열 번째가 ‘돌봄 경제’다.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기준으로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으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다.

배려 돌봄은 환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등 신체적 약자의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돌봄이다. 정서 돌봄은 신체적 불편을 살피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돌봄을 말한다. 마지막 관계 돌봄은 약자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 치유농업이 떠오른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건전하고 완성되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치유농업이야말로 돌봄 경제의 장이 될 것이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농업 활동을 하며 신체적 건강을 얻거나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 교감을 하고 위안과 안정감을 얻을



한윤아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수 있다.

관계 돌봄이야말로 치유농업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살아가는 행복

도 느낀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일어설 힘을 북돋아 주는 활동이야말로 돌봄 경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정서적 치유를,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으로 또 다른 치유를 선물하기 위해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초사회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치유농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한숨 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3.21.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21일)

○ 비료 가격 부담으로 시름에 잠긴 제주농민들 ‘뿔났다’ -10면

비료 가격 부담으로 시름에 잠긴 제주농민들 ‘뿔났다’

농민의길, 어제 비료값 인하-정부 보조금 재인상 요구 ‘한목소리’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 무기질비료 가격 자료공개도 요구

제주의 경우 빠르게 시작하는 봄 농사와 토양특성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시비량이 많은 가운데 비료가격 부담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제주지역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의길은 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와 정부 보조금 재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무기질 비료는 지난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년 대비 102% 상승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정부가 30%, 제주도 20%, 남해화학 30% 등 비료가격 상승 3.21%를 10%로 낮춘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과 2023년에는 국비 1000억원

을 포함해 333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올해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및 비료가격 인하를 이유로 예산을 확 줄여 국비 28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로 961억원을 책정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의하면 요소(그네놀)의 2023년 판매기준가는 1만 7700원으로 국비보조금 5700원을 제하면 실구매가는 1만2000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판매기준가가 9.9% 하락한 1만5950원임에도 국비보조금이 3150원으로 줄어 실구매가는 6.7% 상승된 1만2800원이 됐다.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비료가격 책정 방식의 불투명성에 문제를 느끼고 있던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며 실구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불만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제주 농민의길은 “정부의 보조금 인상



제주 농민의길은 20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비료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값이 폭등한 무기질비료 가격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무기질비료 가격 자료 공개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농촌 현장에서 비료 포함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한 민국 10대 대기업인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제주농협과 남해화학 관계자는 농민들의 요구와 관련 정부의 비료가격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비료가격은 적정가격으로 더 이상의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철 기자